18차시 매체활용(신문) 수업의 다문화교육 적용

1. 신문의 교육적 의미와 효과

1) 신문의 구성 요소

(1) 기사

신문에서 글로 된 부분을 기사라고 말합니다. 기사는 크게 제목과 본문으로 나누어집니다. 제목은 본문의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한 부분입니다. 이런 신문 기사의 형식을 이용하여 긴 글에서 제목이나 리드기사를 찾는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제목을 찾는 다는 것은 글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목을 보고 실제 기사의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예측하는 수업을 이끌 수도 있습니다.

기사는 크게 보도기사, 해설기사, 의견기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도기사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글로 스트레이트 기사라고도 합니다. 보도기사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에 따라 기술하나 필요에 따라서는 일부 요소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도기사는 글을 요약하는 방법을 지도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는 방법을 지도할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해설기사는 보도기사의 내용을 보충해 기사의 배경이나 원인, 영향, 파장, 대안 등을 심층으로 보도하는 기사입니다. 보도기사가 각각의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해설기사는 이것들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이하고 더 깊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도 기사가 6하 원칙에 따라 썼다면 해설기사는 왜? 어떻게?를 더 깊이 있게 다루어, 보도기사에서 알지 못했던 사건의 원인이나 과정 까닭 등도 알 수 있도록 자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해설기사는 이렇게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학습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문의 정보는 책이나 잡지보다 최신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학습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습니다. 해설기사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나 토의·토론 학습의 좋은 자료가 됩니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를 심층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스크랩을 할 때도 해설기사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의견기사는 보도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혀 독자들을 설득

하거나 계몽하기도 합니다. 신문의 사설, 칼럼, 비평이 의견기사에 해당합니다. 서평이나 영화평도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생각을 담아 기고하는 의견기사의 하나입니다. 의견기사로 NIE를 할 때에는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내용을 알게 하기 보다는 '비판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토의·토론학습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주장의 논리성도 따져볼 수 있고, 이런 논리를 어떤 근거로 펴고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의견기사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거나 다르게 주장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기사는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고, 자신의 의견을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펴나가는지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참고: 신문기사의 내용측면의 종류

① 정치기사: 1면에 배치되어 정치 쟁점 기술함
② 경제기사: 경제현상과 경제문제
③ 사회기사: 사회문제와 쟁점 등
④ 문화기사: 신속함보다는 문화조류와 현상의 흐름 등
⑤ 스포츠기사: 젊은층에 인기
⑥ 과학기사: 과학 정보와 발전 예측 등
⑦ 국제기사: 세계 곳곳의 뉴스 등
⑧ 환경기사: 생태계에 관한 뉴스 등
⑨ 해설기사: 뉴스의 원인, 동기, 의미, 배경 등
⑩ 르포기사: 현장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 원인과 결과를 기술함
⑪ 인터뷰기사: 인물, 단체 대상 의견, 주장, 경험
⑫ 단신: 알림, 공지, 모집, 공연, 전시, 강좌, 새상품 등

(2) 사진

과거의 신문에서 사진은 기사 내용을 보조하는 역할을 했지만, 지금의 사진은 영상언어로 취급할 만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문자언어보다 영상언어에 더 익숙해있는 젊은 세대는 기사를 읽고 사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보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기사를 읽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신문 사진은 보도를 전제로 한 영상 언어입니다. 기사와 달리 신문 사진은 특정 인물이나 사건의 장면, 문제 상황을 현장감 있게 부각시켜 뉴스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보도사진은 새소식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성도 매우 강합니다. 사진은 보도기사 뿐만 아니라 특집(해설기사), 스포츠, 요리, 패션 등 다양한 기사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고 사건을 예측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사진을 통해 설명하고 이해하는 학습을 하는 등 요즘은 사진을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사진의 아래나 옆에는 사진 설명을 하는 글이 있는데, 이 글은 사진에 담긴 다양한 모습과 현상을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신문의 사진설명은 장면과 주제에 따라 문장의 수는 1~3개이며 50~100자 정도로 짧지만 매우 명확합니다. 사진을 활용해 수업을 할 때에는 영상언어를 그림언어로 바꾸는 학습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3) 그래픽

각종 통계자료나 사건의 변화, 일정 등을 나타내는 기사는 문자 언어만으로는 그 내용을 독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표나 그래프, 삽화 등을 활용하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쉽고 편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신문과 현재의 신문을 비교해보면 사진이나 그래픽의 비중이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현시대 독자들이 '보는 신문'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프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수학과 사회과 교육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표와 그래프는 과거에는 경제면에서 많이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지면에서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문기사에 나오는 표와 그래프는 학교에서 배우는 단순한 형태의 막대그래프, 꺾은선그래프, 원그래프나 사각형그래프만이 아니라 다양하고 창의적인 그래프를 제시함으로 다양한 NIE를 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관련 인구에 관한 그래프도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삽화는 교과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문에서도 교과서의 삽화처럼 기사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거나 보충하기 위해 자주 사용합니다. 삽화는 사진을 대신하기도 하지만, 기사의 내용을 더욱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풍자를 하기도 합니다. 교과서에서 교과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삽화를 활용한 것처럼, 신문의 삽화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4) 만화와 만평

만평은 주로 정치적인 주제를 다루며, 한 컷의 만화 속에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한 컷의 그림 속에 깊이 있는 메시지를 담기 때문에 삽화 속 인물의 표정이나 주변의 소품 하나도 놓칠 수 없는 것이 만평입니다. 만평은 세상을 읽는 좋은 자료로, 배경지식을 토대로 많은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서양의 사회교과서에서는 만평을 읽는 것을 여러 분야에서 지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평을 수업에 활용할 때에는 우리 사회의 일면을 만평으로 표현해보기도 하고, 만평을 관찰하게 함으로써 사고력을 기르는 수업을 구상할 수도 있습니다.

신문의 연재만화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사건을 4컷 만화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컷 만화의 경우는 기승전결로 학습할 가치가 매우 큽니다. 기사내용을 기승전결로 정리해 만화로 표현할 수도 있고, 만화의 내용을 기사로 연결해 쓸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컷 수가 많은 만화들이 신문에 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각적인 언어에 익숙한 독자들에게 쉽고 빠르게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데 만화가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화·만평을 지도할 때에는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특히 만평과 4단 만화는 사회를 풍자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주제나 내용이 교육적으로 적합하도록 수업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해가 힘든 어려운 내용과 장면, 아이들의 관심사와 떨어진 주제, 어법에 맞지 않는 것, 반인륜적·선정적인 내용 등은 지도하는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또 연령별·학년별 수준에 맞는 내용을 선택하고 교수방법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린 학생들은 만화와 만평을 좋아하기 때문에 수업에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많습니다. 4단 만화의 기승전결을 활용하여 이야기를 만화로 그려보게 하기도 하고, 한 두 컷을 뺀 후 이야기의 앞·뒤를 예측하는 학습을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만화의 캐릭터 분석을 통해 인물의 성격에 맞는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고, 사건을 캐릭터의 입장에서 재해석하는 학습 등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5) 광고

광고는 광고하고 싶은 물건이나 내용을 광고주가 신문사에 돈을 내고,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싣는 것입니다. 광고는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장점만을 부각한 나머지 사실을 왜곡되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광고의 궁극적인 목적은 상품의 판매 촉진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짧고 강한 이미지로 제품이나 기업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이런 광고의 특징을 학습에 활용하면 재미있는 수업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고의 기능을 생각하며 신문에 게재된 광고를 평가하는 학습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광고하는 상품에서 무엇을 부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쓰는지를 찾거나, 왜 그것을 사용했는지 분석하고 나아가 창의적으로 새로운 광고를 만드는 학습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광고를 활용한 학습을 구성할 때에는 광고가 무엇인지? 광고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어떤 것인지? 등 학생들에게 미리 지도해야 합니다.

2) 교재로서 신문의 교육적 의의

① 학생들에게 성인들의 매체로만 간주되는 신문을 읽는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② 신문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다루므로 읽기와 토론에 대한 동기 유발을 합니다.

③ 신문은 교실 내부와 외부 '현실' 세계를 이어줍니다.

④ 신문은 현재 일어난 일의 역사를 담는다. 사회적 문제와 사건이 완전히 객관적으로 기록됩니다.

⑤ 신문은 모든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는 만화, 사설, 수학 문제, 과학, 스포츠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⑥ 신문에는 학생들이 일생 동안 반복해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단어(어휘)들을 담고 있습니다.

⑦ 신문은 관심분야에 밑줄 치고, 자르고, 붙이고, 색칠을 할 수 있습니다.

⑧ 신문 기사는 명확하면서 짧고 간결한 글의 가장 좋은 모델입니다.

⑨ 신문은 어떤 목적이 있거나 특정한 독자에게 글쓰기를 가르쳐 주는 완벽한 모델입니다.

⑩ 신문은 가장 최신의 정보를 담고 있는 사회 교과서입니다.

⑪ 신문은 우리 고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물론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까지 매일매일 기록합니다.

⑫ 신문은 대다수 학생들이 일생 동안 꾸준히 읽어나갈 유일한 교과서입니다.

⑬ 신문은 자유로운 우리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고 필수불가결한 존재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3) 신문을 활용한 다문화교육의 교육적 효과

(1) 교재로서 신문의 장점

① 최신 데이터·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② 실제로 있는 일과 있었던 일을 과제로 삼을 수 있습니다.
③ 현실에서 사회적으로 문제화한 것을 다룰 수 있습니다.
④ 폭넓고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⑤ 여러 사람들의 발언, 다른 의견, 다양한 사고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⑥ 시간 경과를 따라가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⑦ 누구나 손쉽게 입수할 수 있습니다.
⑧ 몇 가지 신문을 비교하며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⑨ 사진이나 그래프, 그림 등을 다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⑩ 스크랩하고 보존할 수 있습니다.
⑪ 교사가 새로운 사실을 알거나 깨닫거나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교재로서 신문의 단점

① 활자가 작습니다.
② 학생이 아직 학습하지 않은 한자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③ 문장이 어렵습니다.
④ 국어 교과서와는 다른 표기법으로 쓰인 것도 있습니다.
⑤ 초등학교 아동의 학습에 적합한 기사가 적습니다.
⑥ 제목이 자극적이며 선정적이거나 지나치게 언어의 장난을 한 기사도 있습니다.
⑦ 사회의 어두운 면과 부정적인 면만 다루는 경향도 있습니다.
⑧ 사건의 결과와 현상만 부각되고 교육적 관점이나 인권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기사도 있습니다.
⑨ 신문사나 기자의 편견이 개입되어 교재의 공정성, 중립성에 적합하지 않은 기사도 있습니다.
⑩ 일반 종합지를 구독하지 않는 가정도 있습니다.
⑪ 교과서를 가르치는 일만으로도 너무 바빠서 신문을 교재로 도입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⑫ 언제, 어떤 기사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지도계획을 수립하기 어렵습니다.
⑬ 교재화하는 교사의 역량과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3) 교재로서 신문의 교육적 효과

교재로서 활용되는 신문의 교육적 가치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신문은 학교에서 다양한 중요 사항들을 가르치고 배우는 자료로써 가치가 있습니다.
둘째, 신문은 독서와 작문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텍스트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셋째, 신문은 시민사회와 지구촌을 아우르는 능력을 키워 주는 자료로써 가치가 있습니다.

교수·학습 자료로써 신문의 중요성을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1)]

〈표〉 교수·학습자료로서 신문의 효과

신문의 효과	내 용
동기 부여 (Motivation)	신문은 재미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가정과 학교를 연결하는 훌륭한 다리 역할을 하며, 전통적인 학교 교재보다 더 많은 흥미를 유발시킨다.
정보 제공 (Information)	신문은 두 가지 기본적인 정보의 물음들, 즉 '무엇이 어떻게 됐나?(뉴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사설·칼럼)'에 답하는 뉴스매체이므로 중요한 교수 자료가 된다.
통합성 (Articulation)	신문의 내용 자체가 다른 중요 사항이나 능력을 함께 길러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치 만화를 통해 이해력과 상징, 풍자 등을 가르치려면 자연스럽게 그 만화의 배경이 되는 정치인이나 정치 사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따라야 한다.
감상력 (Appreciation)	정보와 서비스의 원천으로서 신문은 독자들의 문제해결과 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협동학습 (Cooperation)	토의와 토론을 유도하는 등 교수 방법에 변화를 줌으로써, 협동학습을 자연스럽게 강화하게 된다. 또한 여럿이 문제를 풀고 프로젝트를 완성함으로써 협동하는 자세를 길러준다.

2. 신문을 활용한 다문화교육의 방법

1) 신문활용수업의 네 단계 행동목표

행동목표는 다음의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Olson, 1985). 각각은 사실상 단계 또는 수준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가장 초보적인 것으로 신문에서 정보를 찾아내는 단계입니다. 가장 쉬운 활동이므로 저학년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나 어떤 활동이든지 먼저 정보를 찾아야 그 다음 단계의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행동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찾아낸 정보를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정보를 찾았으면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보를 찾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핵심을 파악한다든지, 도표를 분석해서 이해한다든지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찾기보다는 높은 단계의 사고를 요구하지만 사실은 이 또한 기본적인 행동목표에 속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평가하기입니다. 정보를 찾고 이해를 했으면 이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1) DeRoche, Edward F.(1991). The Newspaper – A Referene Book for Teachers and Librarians. ABC CLIO, pp. 3~8; 김정실 · 안현효(2004), "NIE를 활용한 경제교육의 효과 : 고등학교 1학년 경제단원을 중심으로", 「교과교육학 연구」 제8권 3호. 407쪽에서 재인용.

들어가는 평가활동을 합니다. 즉 신문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드리지 않고 나름대로 비판적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신문을 찾고, 이해하고, 평가한 다음, 새롭게 내가 만들어보는 활동을 하는 단계입니다. 특정 주제의 사설을 써 본다든가, 특정 주제의 기사를 만들어본다든가, 두 사설을 비판하고 새롭게 통합해 본다든가 해서 자신의 것을 만들어보는 가장 수준 높은 단계입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이러한 단계가 학년별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저학년의 경우 신문의 4단 만화를 참고로 자신이 만화를 만들어본다든가, 글자를 오려서 문장을 만들어보는 것 등도 4단계에 속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교사는 1,2단계도 중요하지만 3,4단계도 많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표> NIE 단계

단계	특성	관련 행동
1단계	신문에서 특정 정보를 발견한다	발견하다, 열거하다,
2단계	신문에서 특정 정보를 이해한다	관계짓다, 요약하다, 인과관계를 설명하다
3단계	특정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비교하다, 구별하다
4단계	정보를 창조적으로 활용한다	상상하다, 구성하다, 재정렬하다, 다시쓰다

2) 행동목표에 따른 신문활용수업의 종류

(1) 찾기

① '육하원칙으로 정리하기'는 신문기사를 육하원칙으로 정리를 해 보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기사는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신문기사에 담겨진 내용을 정확히 찾아내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일어난 차례 알기'는 복잡하게 보이는 사건에 대한 기사도 일어난 시간별로 정리해보면 좀 더 쉽게 정확하게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fact)과 의견(opinion) 구분하기'는 냉정하게 기사속의 사실을 찾아내는 훈련을 하게 합니다. 즉 신문사의 논조나 기자의 사견을 배제하는 훈련을 합니다. 논조가 달라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기사도 사실과 의견 구분하기를 통해 보면 동일한 사실을 보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③'수사법 찾기'는 비유나 은유 등 다양한 방식의 표현방식을 찾아내어 다양한 표현방법을 익힐 수 있게 합니다. 신문은 온갖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의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나 은유 등의 수사법의 좋은 사례를 많이 다루게 됩니다.

④'귀화어, 차용어, 외래어 찾기'도 기사에 사용된 다양한 어휘들을 구분하고 용어의 종류를 밝혀냄으로서 어휘력을 길러줍니다.

⑤'시사용어사전, 축약어 사전 만들기'는 어휘력을 풍부하게 해 줍니다. 신문기사는 시사 관련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어휘들을 접하게 됩니다. 또한 신문기사는 제한된 지면 때문에 축약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또한 별도로 사전을 만들어 정리하면 일반상식과 어휘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⑥‘한자성어 찾기’는 표현력을 기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신문기사 속에는 한자성어가 적절한 상황 속에서 사용되는 좋은 모범사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⑦‘제목과 기사 짝 맞추기’는 신문기사 제목과 신문기사를 분리시켜 이를 맞추어보게 하는 활동으로 주로 저학년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이는 신문을 좀 더 깊이 읽도록 유도하고, 신문기사를 종합하는 사고를 사용하도록 유도합니다.

⑧‘제목이 뽑힌 문장 찾기’도 비슷한 활동인데, 대부분 신문기사 제목은 본문 속의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어떤 문장에서 제목이 나왔는지 읽어보는 가운데 신문기사를 좀 더 깊이 읽도록 하여 이해력을 키웁니다.

(2) 이해하기

①‘K-W-L 학습’은 그림처럼 신문기사를 보고 해당 주제에 대해 내가 일고 있는 것, 알고 싶은 것을 쓰고 신문기사를 읽은 다음에 내가 새롭게 알게 된 것을 적어보는 활동입니다. 이는 기존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새로운 지식에 연결시킴으로서 내 지식과 사고의 깊이와 폭을 넓혀주어 유의미 학습을 하게 해 줍니다. 즉 나의 지식구조를 좀 더 튼튼하고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Know (아는 점)	Want to know (알고싶은 점)	Learned (알게 된 점)

②‘원인과 결과 구분하기’는 신문기사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설명한다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기사는 원인과 결과를 함께 제시합니다.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구분하는 활동으로도 신문기사는 좀 더 쉽게 이해됩니다.

③‘줄거리 알아내기’는 신문기사의 내용을 짧게 줄거리로 파악하는 활동인데, 이는 신문기사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④‘주제 알아내기’는 신문기사의 주제가 한마디로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훈련을 하게 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주제를 찾아내는 능력은 정보화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능력입니다.

(3) 평가하기

①‘비교하며 읽기’는 서로 다른 논조의 두 신문사 기사를 함께 비교하며 읽으면 중립적 입장에서 그 주제에 대해 균형 있는 관점을 갖게 해 줍니다.

② ‘추론하기’는 주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된 기사에서 결론부분을 가리고 직접 한번 결론을 만들어보라는 방식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그런 다음 실제 기사와 자신의 글을 비교함으로써 추론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③ ‘기사 비평하기’는 신문기사에 대해 자신의 관점으로 비판하여 평가해보는 활동입니다. 즉 기사를 그대로 이해하여 받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사의 내용과 주장을 요약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논평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④ ‘오늘의 뉴스, 이달의 뉴스, 올해의 뉴스 정하기’는 오늘, 한 달, 일 년 동안 가장 나에게 인상적이었던 기사를 선정해 보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다양한 신문기사들을 모두 읽고 비판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선정된 기사에 의미를 부여하는 경험을 갖게 합니다.

⑤ ‘제목 비교하기’는 비교하며 읽기와 비슷한 활동이지만 좀 더 쉬운 활동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었는데도 제목이 사뭇 다르다면 그것은 주장의 차이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제목만 비교해도 어떤 입장에서 기사가 쓰여졌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4) 창조하기

① ‘시제 바꾸기’는 기사에서 시제를 바꾸어 써보게 함으로써 시제를 정확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② ‘중복된 언어나 어미 바꾸어 쓰기’는 쓰기 훈련을 시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신문 기사에서 중복되어 사용되는 언어를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보게 하고, 어미를 같은 의미의 다른 어미로 바꾸어 보게 함으로써 표현력을 길러줍니다.

③ ‘시사퀴즈 만들기’는 시사용어가 많이 나오는 신문기사를 이용하여 퀴즈를 만들어보는 활동입니다. 문제를 만들면 문제를 만드는 재미가 있어서 학습동기가 높아지고, 문제에 대한 깊이 있게 공부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④ ‘부분 완성하기’는 신문기사의 일부를 지우고 그 부분을 채워보게 합니다. 전체 기사를 쓰기는 어렵지만 부분을 완성하기는 쉽고, 부분을 완성하기 위해 전체를 깊이 있게 읽도록 유도합니다.

⑤‘후속 기사 쓰기’는 기사를 읽고 그 다음의 기사를 상상하여 써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존 기사의 이해력과 새로운 상상력을 길러줍니다.

⑥‘형식 바꾸기’는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거나 그 반대의 활동을 통해 문장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훈련을 하게 합니다.

⑦‘기사의 양을 늘이거나 줄이기’는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는 훈련, 그리고 요약해서 줄이는 훈련을 하게 합니다.

⑧ ‘기사의 주인공을 바꾸어 쓰기’도 창의력을 길러줍니다. 기사의 주인공은 바꾸되 기사의 양식이나 표현은 비슷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기사를 창조하게 합니다.

⑨ ‘가상 인터뷰기사 쓰기’는 기존의 기사를 인터뷰기사로 바꾸어 쓰게 합니다. 물론 인터뷰 기사를 쓸 수 있는 기사 소재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⑩ ‘TV 뉴스 기사 쓰기’는 기사를 TV 뉴스처럼 구어체로 바꾸어 보는 활동입니다. 이 역시 흥미롭기 때문에 활동을 하는 가운데 표현력이 신장됩니다.

⑪ ‘패러디 기사 쓰기’는 기사를 소재로 패러디를 창조하는 것으로 매우 재미있으며 학생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합니다.

⑫ ‘제목을 완전한 문장으로 만들기’는 동시에 제목을 만드는 훈련도 함께 시켜줍니다. 제목은 주장하고자 하는 하나의 문장을 가장 간결하게 구성한 표현이므로 이를 풀어서 문장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역으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간단한 표현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⑬ ‘기사 제목 달기’는 신문기사의 제목을 지우고 학생스스로 제목을 달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신문기사의 전체 내용을 종합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table>
<tr>
<td>☐ 육하원칙으로 정리하기
☐ 일어난 차례 알기
☐ 사실(fact)과 의견(opinion) 구분하기
☐ 수사법 찾기
☐ 귀화어, 차용어, 외래어 찾기
☐ 시사용어사전 만들기
☐ 축약어 사전 만들기
☐ 한자성어 찾기
☐ 제목과 기사 짝 맞추기(저학년)
☐ 제목이 뽑힌 문장 찾기</td>
<td>☐ K-W-L 학습
<table><tr><td>Know (아는 점)</td><td>Want to know (알고 싶은 점)</td><td>I need (된 점</td></tr><tr><td></td><td></td><td></td></tr></table>☐ 원인과 결과 구분하기
☐ 줄거리 알아내기
☐ 주제 알아내기</td>
</tr>
<tr>
<td>찾기</td>
<td>이해하기</td>
</tr>
<tr>
<td>창조하기</td>
<td>평가하기</td>
</tr>
<tr>
<td>☐ 시제 바꾸기
☐ 중복된 언어나 어미 바꾸어 쓰기
☐ 시사퀴즈 만들기
☐ 부분 완성하기
☐ 후속 기사 쓰기
☐ 형식 바꾸기
☐ 기사의 양을 늘이거나 줄이기
☐ 기사의 주인공을 바꾸어 쓰기
☐ 가상 인터뷰기사 쓰기
☐ TV 뉴스보기 기사 쓰기
☐ 패러디 기사 쓰기
☐ 제목을 완전한 문장으로 만들기
☐ 기사 제목 달기</td>
<td>☐ 비교하며 읽기
☐ 추론하기
☐ 기사 비평하기
☐ 오늘의 뉴스, 이달의 뉴스, 올해의 뉴스 정하기
☐ 같은 내용을 다룬 두 신문의 제목 비교하기</td>
</tr>
</table>

[그림] NIE 활동

출처: 이태종, 2006, NIE 원론, 서울: 통키에서 재편집

3. 신문을 활용한 다문화 수업의 적용

신문의 구성요소에 따른 수업실제를 행동목표별로 적용해 봅시다

1) 기사
(1) 보도기사
단계 1 : 다문화 관련 현상에 대한 보도기사 찾기
단계 2 : 기사 내용 이해하기 (제목과 리드기사로 본문 내용 예측하기/ 6하 원칙에 따라 읽기/ 중요한 낱말 이해하기)
단계 3 : 사고력을 높이는 활동하기(주장과 사실 구별하기, 주장에 대한 근거 찾기)
단계 4 : 새로운 것으로 창조하는 활동하기(인터뷰를 통해 기사쓰기)

(2) 해설기사
단계1 : 독일의 난민 정책에 대해 사실을 깊이 있게 설명한 기사찾기.
단계 2 : 기사 내용 이해하기 (핵심어 찾기를 통한 글읽기/ KWL로 글읽기)
단계 3 : 사고력을 높이는 활동하기(설명하는 방법 알기 : 설명하는 글은 대체로 정의, 분석, 분류, 비교·대조, 인용의 방법을 씁니다. 글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설명하는지 찾아봅니다.)
단계 4 : 새로운 것으로 창조하기(우리나라 난민정책에 관해 기사 써 보기)

(3) 의견기사
단계 1 : 신문에서 서평을 찾아 스크랩하기
단계 2 : 이해하기 (서평에서 얻은 정보 정리하기)
단계 3 : 사고력을 높이는 활동하기(필자의 의견이 담긴 부분찾기/필자와의 모의인터뷰)
단계 4 : 창조하기 (서평쓰기)

2) 사진
단계 1 : 문화 다양성 관련 보도사진 찾기
단계 2 : 이해하기 (사진으로 기사내용 파악하기)
단계 3 : 사고력을 높이는 활동하기(보도사진과 보도기사 비교하기/장단점 찾기)
단계 4 : 창조하기 (사건을 이야기로 만들기)

3) 그래픽
단계 1 : 신문에서 다문화 인구 관련 그래프 찾기
단계 2 : 이해하기 (같은 종류의 그래프끼리 묶기/ 종류에 따른 그래프의 특징 찾기)
단계 3 : 분석하기 (그래프 분석하기)
단계 4 : 자료를 그래프 나타내기

4) 만화
(1) 만화의 인물 활용
단계 1 : 신문에서 4컷 만화 중 문화다양성 관련된 것 찾기/이해하기
단계 2 : 분석하기 (만화 등장인물의 성격을 표정, 몸짓, 말을 통해 예측하기)

단계 3 : 창조하기(등장인물의 성격(이미지)을 바꿔 새로운 만화 만들기)

(2) 만화의 스토리 활용

단계 1 : 문화다양성 관련 만화를 찾아 내용 파악하기
단계 2 : 이해하기(자신의 읽은 만화의 내용 친구들에게 소개하기)
단계 3 : 분석하기 (말주머니를 지운 만화에 이야기를 담고 친구들과 비교하기)
단계 4 : 창조하기(만화를 다른 창작물로 만들기)

5) 광고

단계 1 : 다양한 인종이 등장한 광고 찾기(같은 상품을 생산하는 다른 회사의 광고 찾기)
단계 2 : 이해하기(광고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 알기)
단계 3 : 분석하기 (인터뷰를 통해 친구들이 좋아하는 광고 분석하기)
단계 4 : 감명 깊었던 광고 만들기고 광고왕 뽑기